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마라 (2012) 백지연, 김용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계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음. 2019년에 읽음.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
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

“꿈이 뭐니?”라고 물으면 직업을 대는 경우가 허다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어떻게 살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는 표정이 되 돌아온다.” (P. 97)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갖는 데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P. 101)

“세계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P. 114) 다트머스대학교 취임 연설 중.

“공부만 한 소위 ‘공부벌레’는 이제 학교에서는 거의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진지한 학업에 대한 열정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심오한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을 원합니다. (...) 한국의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 116)

“인재는 링크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접점이 되는 사람이다.” (P. 118)

“김용은 어머니로부터 “너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식이었다. “마틴 루터 킹, 간디, 워싱턴을 생각해봐라,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니?” ‘마음을 열고 사고를 넓혀라.’ ‘좋은 책을 읽어라.’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과는 좀 달랐어요. ‘열심히 공부해라’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넌 누구냐?’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세상에 좋은 게 뭐냐?’ ‘누가 가장 위대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P. 146)

“글쓰기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 ‘글쓰기는 쉽다. 혈관을 열어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된다.’고요. 글쓰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글쓰기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한국의 교육과학부에 하나만 건의한다면 글쓰기 교육에 정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P. 184)

“글을 잘 쓰려면요?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P. 185)

“사람들은 제가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운동을 하면서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운동이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의 부모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말입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운동할 수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P. 202)

“예술교육은 예술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신경 연결망을 발달시킨다. ‘예술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어떤 문제를 볼 때 두뇌의 여러 부분이 함께 움직입니다.’” (P. 204)

“저에게 성공이란 전에도 말했듯이, 이곳에 누군가가 되고자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일을 하기보다는 나의 지위를 지키려고 노력할 때 스스로 이 일에서 물러날 겁니다. 이런 일(총장직)은 엄청난 압력과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어떤 지위를 누리는 마음을 갖기 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직업이니까요.” (P. 226)

“또 한 가지 제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인데요. 이건 훨씬 어려운 일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영역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 정말 자신에 대한 평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 자신이 좋은 리더인지 좋은 아버지인지 남편인지 등에 대해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건 정말 어렵죠.” (P. 227)

“저에게 성공이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되기보다는 무엇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마침내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P. 228)

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귀감이 되는 인물을 발견했다.

어떻게 나의 남은 인생을 살고, 미래를 대비하여 자녀를 교육할지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지위와 직업을 얻는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수단으로만 삼는 삶으로.

예술, 글쓰기, 운동을 접하게 하고, 가르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나와 자녀를 훈련하기.